

네이버, '조작논란'에 실검 서비스 개편

광고계, 실검으로 인한 뉴스 어뷰징 문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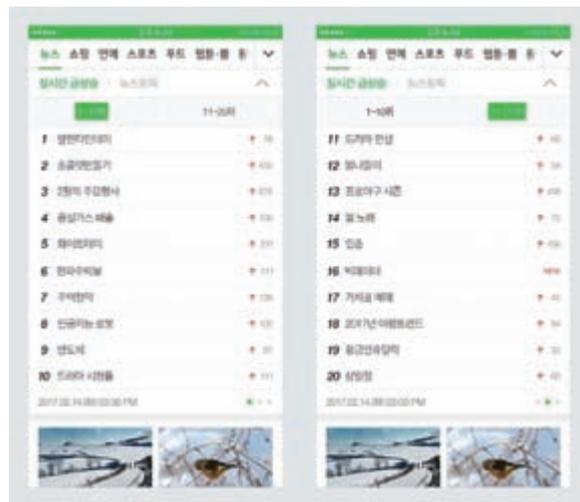
실시간 검색어 조작논란에 휘말린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1월 24일 오후부터 검색어 순위를 기존 10위에서 20위까지 순위 더보기 기능을 추가하고, 오는 3월에는 하루동안 특정 검색어가 매 15초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검색어 트래킹'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내정자는 "관심사의 다양성을 검색어로 보여주는 실검 차트는 최다량 기준의 인기검색어 차트와는 직관적으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실검검과는 상호보완의 성격을 갖는 빅이슈를 보여주는 '뉴스토픽'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정보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초 정부의 개입으로 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다고 알려지자 '투명성 위원회'를 구성,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전면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운영 기준 정비 ▲검증 프로세스 강화 ▲히스토리 추적 ▲외부와의 소통 등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한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뉴스 어뷰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악용되지 않도록 포털 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뷰징 기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나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원장)는 "뉴스에 의존하는 언론환경인 만큼, 포털은 한 사회의 언론 문화를 이끌어 나갈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포털은 뉴스 공급과 콘텐츠 체크 알고리즘을 혁신해 어뷰징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거나 어뷰징을 유발해온 검색어 순위 집계 서비스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24일자 기사를 통해 네이버가 실검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네이버 입장에서 실검을 폐지하게 되면 검색에 따른 광고수익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보완·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AA**

유재형 yoojh1999@kaa.or.kr